

본 자료는 2005. 1.18(화)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 보도자료 (산업자원부 공보관실)	담당과	자본재산업총괄과
		담당자	김경종 과장 최남호 사무관
		전화번호	2110-5612
KOTIS·나우누리 : go mocie, 천리안·하이텔 : go allim, 인터넷 : www.mocie.go.kr			

부품·소재산업 육성을 핵심 산업정책 과제로 추진

□ 산업자원부(장관:李熙範)는 1.17(월)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"부품·소재산업 발전전략"을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고용창출과 함께 대·중소기업 협력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음.

○ 산업자원부는 2010년까지 매출규모 2천억원, 연간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중핵 부품·소재기업 300개를 집중 육성하고

- 10대 전략 부품·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민·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5천억원을 투자하며 매년 50개 내외의 시장수요형 부품·소재 품목을 발굴·지원하는 한편, 국내에서 개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도입과 맞춤형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
- 2010년까지 핵심 부품·소재의 세계적인 공급기지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

* 이번 발표는 과기부·산자부·정통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('05. 1.13)시 "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의 핵심인 부품·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 시키겠다"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임

□ 발전전략 수립배경

○그간 부품·소재산업은 부품·소재특별법('01.4) 제정 이후 업계와 정부의 노력 결과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음

- * 수출(억불) : ('00)799 → ('03)820 → ('04잠정)1,081 → ('05.전망)1,193
- * 무역수지(억불) : ('00) 93 → ('03) 62 → ('04잠정) 148 → ('05.전망) 165

○그러나,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 부품·소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도 국내고용이 증가하지 않고, 수출 기업과 내수기업간 양극화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

- 특히, 첨단 부품·소재를 중심으로 대일무역 적자가 지속 확대중

- * 對日적자(억불) : ('01)△103 → ('02)△118 → ('03)△139 → ('04.잠정)△171
- * 지난 10년간('93~'03년) 부품·소재 대일적자 누계 : 1,020억불

○더욱이 한·일FTA체결 및 중국 급성장 등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부품·소재산업의 역량을 엄밀히 분석, 이에 따른 부품·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임

- * 부품·소재산업 분석은 ①부품·소재기업 역량 ②그간 정부의 육성정책 ③對日 적자품목에 대한 수입요인 등에 대해 이루어짐

<부품·소재별 대일 수입원인 분석 결과>

부품·소재	수입규모	수입원인	대응전략
집적회로반도체, 밸브류 등 68개 품목	103억불 (삼성전자 등)	· 응용기술 부족 · 신뢰성 취약	→ 기술개발
정밀베어링 등 13개 품목	24억불 (한화 등)	· 원천기술 부족 · 기반기술 취약	→ 기술도입
기어박스, 폴리프로 필렌 등 19개 품목	41억불 (현대차 등)	· 기술이전 기피 · 시장규모 협소	→ 투자유치

□ 발전전략의 목표

○ 이번 발전전략의 목표는 2010년에 우리나라가 핵심 부품·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가 되고자 하는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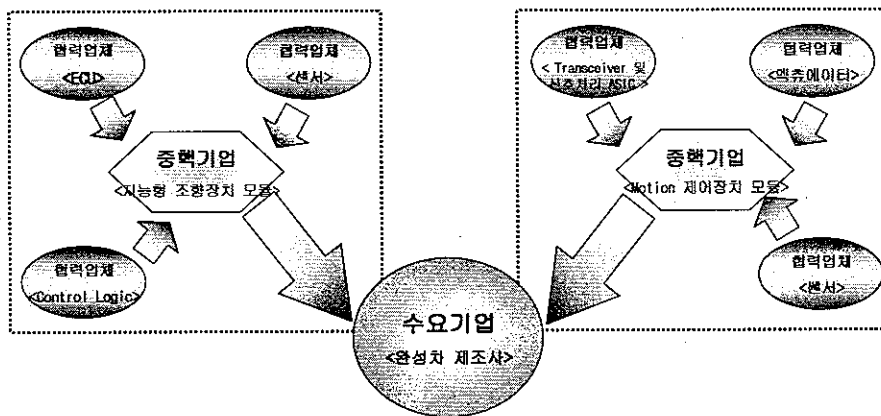
* 정책 패러다임을 현재 단기중심의 소규모 살포식, 개별기업형 지원에서 중장기 대형과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대·중소기업 연계형 지원에 역점

○ 구체적으로는 매출 2천억원, 수출 1억불을 초과하는 중핵기업의 300개 육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임

* 중핵기업이란 모듈화 방식의 생산이 가능하고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을 초과하는 규모를 갖춘

* '04년 현재 매출 2천억원 초과(179개사), 수출 1억불 초과(150개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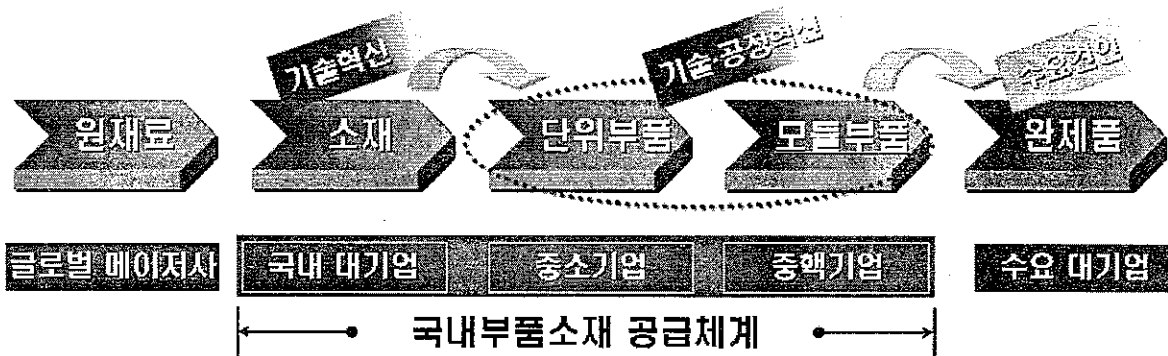
< 부품·소재 중핵기업 개념도 >



- 중핵기업의 육성은 ①영세성으로 인한 R&D투자여력 부족, ②대기업과의 종속적 관계로 인한 안정적인 성장 제약 등 그간 부품·소재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임
- 이는 부품산업이 모듈화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응하는 것임

□ 발전전략의 중점 추진내용

① 기업 특성에 따라 혁신역량 확충



- 소재기업, 중핵기업 :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
- 중소·벤처 부품기업 : 혁신역량 확충(종합기술지원 등) 지원
- 수요기업 : 개발된 부품소재의 수요견인(수요연계 기술개발 등)

② 부품·소재 유형별 특성에 따라 핵심기술 확보

- 미래원천형 : 10대 전략 부품·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
민·관 공동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 집중 투자
- 시장수요형 : 한·일 FTA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품목, 중국 수출
확대 품목 매년 50개 내외 품목에 500억원 지원
- 경쟁력 취약형 : 맞춤형 투자유치 및 해외기술 도입·협력

③ 개발된 부품·소재의 사업화 촉진

【사업화 자금지원】

- 사업화·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
 - * '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자금'(1.5조원) 등 활용
- 반도체·자동차·조선 등 주요업종에서 "수급기업투자펀드" 조성

【수급기업간 협업 활성화】

- 수급기업간 공정혁신을 위한 '제조장비 개발 로드맵' 수립
 - * 자동차(다관절 로봇), 반도체·디스플레이(나노·플라즈마 가공장비) 등
- 수요기업-부품·소재기업간 쌍방향 구매정보 포털 구축

【공공기관 등의 부품·소재 구매 촉진】

- '부품소재·기계류 보험'을 도입 검토 등

④국내 부품·소재 기업의 글로벌 수출기업화 지원

- 신뢰성의 상호인증 및 신뢰성 보험으로 수출확대 촉진
 - * ('04)기계부품 → ('05)전자,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
- 해외 주요기업과 수출상담 및 정보제공, 투자유치('05, 25억원)

⑤부품·소재 혁신클러스터 확산기반 구축

- 반월·시화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육성('05, 50억원) 및 전국 확대

⑥부품·소재산업 혁신촉진형 제도 정비

- 부품·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
- 국방 연구개발비의 일정비율 부품·소재에 책정(現 9.2%,→15%)

□ 발전전략의 평가 및 기대효과

○ 이번 발전전략은 부품·소재산업에 대한 정태적·동태적 분석과 수차례에 걸친 민간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된 것으로 부품·소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됨

- 부품·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
- 국방 기술개발자금의 일정비율 부품·소재에 책정(현 9.2%→15%)
- 반도체·자동차·조선 등 주요업종에서 “수급기업투자펀드” 조성 등

○ 이런 정부의 부품·소재산업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될 경우, 부품·소재산업의 수출비중은 2004년 43.8%에서 2010년에는 50%로 제고되고,

- 핵심 부품·소재를 자급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여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견인 할 것임

* 수출 : ('04, 잠정)1,081억불 → ('10)2,500억불,
무역수지 : ('04, 잠정) 148억불 → ('10)500억불

* 국내 제조업 외화가득율 : ('00) 63.3 → ('10) 75%

< 부임 1 >

부품·소재산업의 생산 및 무역통계

□ 개 요

부품·소재		2003	2004(잠정)
생 산	조원 증감율(%)	258 (6.2)	288 (11.3)
고 용	만명 증감율(%)	124.7 (1.1)	125.8 (1.2)
수 출	백만불 증감율(%)	82,010 (20.9)	108,089 (31.8)
수 입	백만불 증감율(%)	75,843 (16.8)	93,326 (23.1)
무역수지	백만불	6,167	14,763

자료 : 한국기계산업진흥회, 산업연구원

□ 부품·소재산업의 생산통계

○ 부품·소재 산업은 제조업 생산액의 38%, 종사자의 46.3%, 사업체의 31.2%, 수출입의 42%를 점유하는 국내 제조업의 중추에 해당

	생산 (단위:조원)			고용 (단위:만명)			수출 (단위:억불)			수입 (단위:억불)		
	전체	부품 소재	비중 (%)	전체	부품 소재	비중 (%)	전체	부품 소재	비중 (%)	전체	부품 소재	비중 (%)
'04 (추정)	741	288	38.9	270	126	46.67	2,542	1,081	42.53	2,245	933	41.56
'05 (전망)	802	309	38.5	267	127.7	47.83	2,850	1,193	41.86	2,570	1,028	40.00

○ 종사자와 사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생산
이나 사업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

	생 산(조원)		종사자수(만명)		사업체수(개)	
	2002	2003	2002	2003	2002	2003
제 조 업	634 (100.0)	677 (100.0)	270 (100.0)	272 (100.0)	110,356 (100.0)	111,314 (100.0)
부 품 소 재	243 (38.3)	257 (38.0)	122.9 (45.6)	124.7 (46.3)	33,282 (30.2)	34,770 (31.2)

자료 : 통계청, 한국기계산업진흥회(2003년은 산업연구원 추정치)

○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창출효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
제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

	제 조 업 전 체(만원)			부 품 · 소 재(만원)		
	1995	1998	2000	1995	1998	2000
부가가치노동생산성	3,018	4,778	5,025	3,230	4,769	5,199

○ 또한, 부품·소재산업의 취업유발효과는 제조업에 비해 낮으나
노동파급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남

	제 조 업 전 체			부 품 · 소 재		
	1995	1998	2000	1995	1998	2000
취업유발효과(명/10억)	25.5	16.7	14.1	23.6	15.6	12.8
노동파급효과(%)	152.5	187.9	182	162.2	205.9	204.8

□ 부품·소재산업의 무역통계

○ 전체무역에서 부품·소재산업의 비중

(단위 : 억불, %)

	수출			수입			수지		
	전체	부품 소재	비중	전체	부품 소재	비중	전체	부품 소재	비중
2000	1,723	799	46%	1,605	706	44%	118	93	79%
2001	1,504	620	41%	1,411	592	42%	93	27	29%
2002	1,625	678	42%	1,521	649	43%	103	29	28%
2003	1,938	820	42%	1,788	758	42%	150	62	41%
2004(p)	2,542	1,081	43%	2,245	933	42%	298	148	50%

○ 대일무역에서 부품·소재산업의 비중

(단위 : 억불, %)

	수출			수입			수지		
	대일 전체	부품 소재	비중	대일 전체	부품 소재	비중	대일 전체	부품 소재	비중
2000	205	81	39%	316	196	62%	-111	-115	104%
2001	165	62	37%	264	165	62%	-99	-103	104%
2002	151	65	43%	299	183	61%	-147	-118	80%
2003	173	77	44%	363	216	59%	-190	-139	73%
2004(p)	216	96	44%	463	266	58%	-246	-171	69%

○ 대중무역에서 부품·소재산업의 비중

(단위 : 억불, %)

	수출			수입			수지		
	대중 전체	부품 소재	비중	대중 전체	부품 소재	비중	대중 전체	부품 소재	비중
2000	185	101	55%	123	54	44%	61	47	76%
2001	182	96	53%	123	53	42%	53	43	80%
2002	238	126	53%	174	72	41%	64	54	85%
2003	351	195	56%	219	90	41%	132	106	80%
2004(p)	501	294	59%	295	132	45%	206	163	79%

부품·소재산업의 업종별 통계

□ 업종별 생산전망

(단위 : 10억원, %)

업종명		2004년(잠정)		2005년(전망)	
	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
부품·소재		287,596	11.3	309,454	7.6
	섬유제품	11,296	2.0	11,183	-1.0
	석유화학제품	27,023	1.8	27,320	1.1
	정밀화학제품	12,797	-1.0	13,513	5.6
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17,324	9.3	18,675	7.8
	비금속광물제품	5,411	5.6	5,671	4.8
	제1차금속제품	43,277	5.0	44,575	3.0
	조립금속제품	8,484	10.4	9,196	8.4
	일반기계부품	23,581	12.6	25,303	7.3
	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	5,631	5.9	5,929	5.3
	전기기계부품	25,029	5.8	25,930	3.6
	전자부품	70,093	27.8	80,481	14.8
	정밀기기부품	2,827	7.9	2,988	5.7
	수송기계부품	34,824	13.9	38,689	11.1

[주] 1. 전년대비 증감율임 2. 2004년 금액은 추정치임

□ 업종별 수출전망

(단위 : 백만불, %)

업종명		2004년(잠정)		2005년(전망)	
	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
부품·소재		108,089	31.8	119,278	10.4
	섬유제품	4,801	0.4	4,710	-1.9
	석유화학제품	13,278	39.8	15,100	13.7
	정밀화학제품	4,629	9.1	4,690	1.3
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3,931	21.9	4,383	11.5
	비금속광물제품	862	29.2	835	-3.1
	제1차금속제품	14,045	60.7	15,562	10.8
	조립금속제품	1,661	36.2	1,797	8.2
	일반기계부품	6,902	27.2	8,040	16.5
	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	8,702	23.0	9,616	10.5
	전기기계부품	5,007	29.2	5,497	9.8
	전자부품	36,526	33.4	40,325	10.4
	정밀기기부품	997	53.2	990	-0.7
	수송기계부품	6,747	41.2	7,732	14.6

[주] 1. 전년대비 증감율임 2. 2004년 금액은 추정치임

□ 업종별 수입전망

(단위 : 백만불, %)

업종명		2004년 (잠정)		2005년 (전망)	
		금액	증감율	금액	증감율
부품·소재		93,326	23.1	102,779	10.1
	섬유제품	2,376	8.9	2,550	7.3
	석유화학제품	6,216	20.7	7,116	14.5
	정밀화학제품	6,402	12.1	6,790	6.1
	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1,740	36.2	2,149	23.5
	비금속광물제품	1,665	25.4	1,940	16.5
	제1차금속제품	17,990	53.7	19,105	6.2
	조립금속제품	817	22.9	930	13.7
	일반기계부품	8,525	26.9	9,761	14.5
	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	2,903	-0.4	3,062	5.5
	전기기계부품	6,161	22.3	6,986	13.4
	전자부품	31,447	15.4	34,340	9.2
	정밀기기부품	3,151	26.8	3,743	18.8
	수송기계부품	3,933	15.0	4,307	9.5

[주] 1. 전년대비 증감율임 2. 2004년 금액은 추정치임

□ 업종별 무역수지전망

(단위 : 백만불)

업종명	2004년(잠정,A)	2005년(B)	(B-A)
부품·소재	14,763	16,499	1,736
섬유제품	2,425	2,160	-265
석유화학제품	7,062	7,984	922
정밀화학제품	-1,772	-2,100	-328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	2,191	2,234	43
비금속광물제품	-803	-1,105	-302
제1차금속제품	-3,945	-3,543	402
조립금속제품	844	868	24
일반기계부품	-1,623	-1,721	-97
컴퓨터 및 사무기기부품	5,799	6,553	754
전기기계부품	-1,155	-1,489	-334
전자부품	5,080	5,985	906
정밀기기부품	-2,153	-2,752	-599
수송기계부품	2,813	3,425	611

부품 · 소재산업 발전전략

2005. 1. 17

산 업 자 원 부

目 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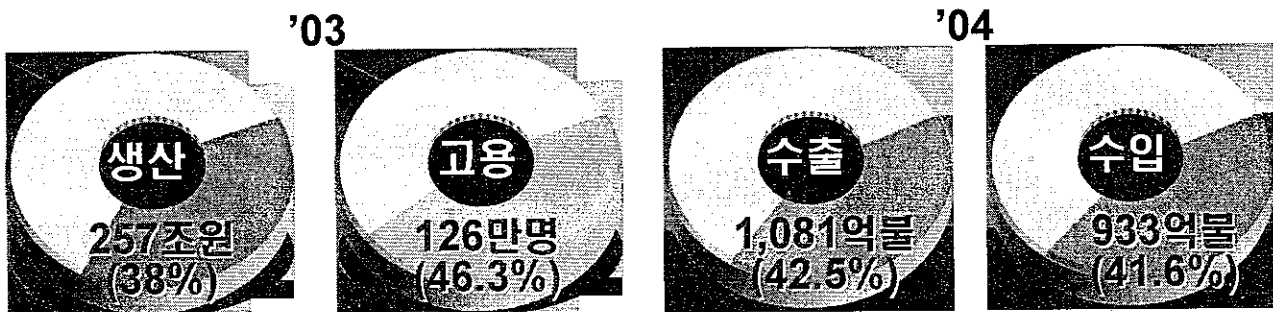
I. 부품·소재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	1
II. 부품·소재산업의 역량진단	3
III. 과거 부품·소재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	5
IV. 부품·소재산업 발전전략	8
V. 범부처적인 민·관 합동의 추진체계 구축	21

I. 부품·소재산업의 현황 및 중요성

가. 국내 부품·소재산업의 현황

경제적 위상

○ 부품·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38%, 종사자의 46.3%, 수출입의 40% 이상을 점유하는 국내 제조업의 중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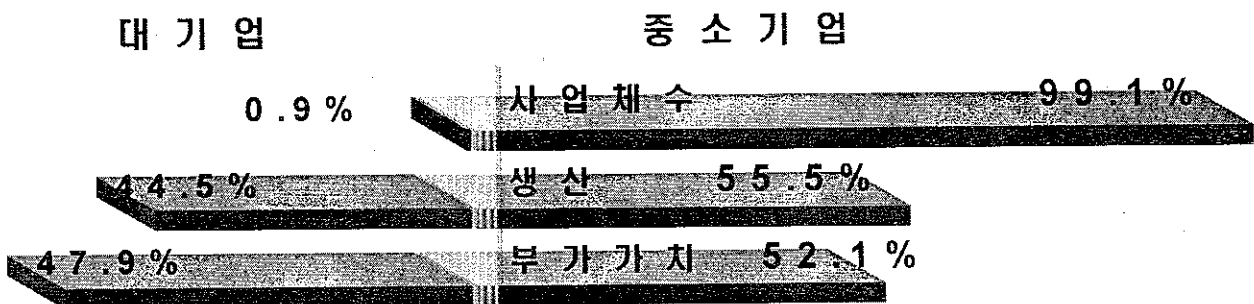


* ()는 전체제조업 대비 비중

산업구조

○ 전체의 99.1%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생산액의 55.5%, 부가가치의 52.1%를 점유

* 부품·소재기업(5인 이상) : 3만 4천개(중소기업 3만 3천개, 대기업 900여개)



* '02 기준

나. 부품·소재산업의 중요성

세계적으로 완제품의 조립생산 능력이 평균화되면서 부품·소재 산업이 기업 및 산업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

기업 측면

○ 완제품 생산원가와 부가가치의 60% 이상을 부품·소재가 차지

- * 완제품 소요부품 : 항공기(10만개), 자동차(2만개), 디지털 TV(700개)
- * 제조업 생산원가(%), '03 : 원료(5.7), 부품·소재(63.4), 인건비 등 경비(30.9)
- * 제조업 부가가치 구성(%), '00 : 부품·소재산업(60.8%), 완제품산업(39.2%)

○ 핵심 부품·소재에 대한 거대 다국적기업의 공급독점 현상 심화

- * 컴퓨터 CPU : Intel의 Inside-Chip이 전 세계 컴퓨터의 80%를 점유
- *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: Bosch, Delphi, Denso 등 3개사가 세계시장 70% 점유

산업구조 측면

○ 대·중소기업, 수출·내수기업간 양극화 현상의 요제

- * 대/중소기업 생산증가률(%) : ('01)0.2/0.4 → ('02)9.0/6.9 → ('03)6.8/2.7
- * 산업별 생산증가률('03. 4/4) : 반도체(39.3%), 자동차(12.1%), 관련부품소재(2-4%)

○ 동북아경제의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

- * 한·일 FTA에 대비한 산업기반 유지와 중국의 금부상에 대응
- * 부품·소재가 동북아 3국의 문명구조와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

국민경제 측면

○ 고용있는 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부품·소재산업의 육성이 시급

* 고용파급효과('00, %) : 전산업 74.2, 제조업 182.0, 부품·소재 204.8 (서물대)

○ 견실한 무역흑자 기조의 정착을 위해서는 부품소재 육성이 핵심

- * 외화가득률('95→'00): 韓(69.8%→63.3%), 美(89.3%), 日(88.9%)
- * 업종별 가득률('95→'00): 전기·전자(65.3%→54.1%), 자동차(72.1%→69.3%)

II. 부품·소재산업의 역량진단

가. 경쟁력 수준

○ 부품·소재의 기술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80%에 불과하여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·소재는 수입에 의존

- * 선진국 100 기준으로 생산기술 82, 설계기술 79, 신제품개발기술 77 ('04기준)
- * 휴대폰 사례 :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원천기술이 포함된 MSM칩 지속 수입

나. 기업활동 단계별 역량 진단

R&D

○ 영세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R&D 투자여력이 매우 부족한 반면 정부의 부품·소재 R&D지원은 분야별 단기 응용기술에 집중

- * 10인미만 기업 : 전체(30.0%), 자동차부품(33.1%), 기계부품(50.2%), 화학소재(43.3%)
- * 부품소재기업의 75%가 제조업 평균 매출액대비 R&D비율(1.41)을 하회
- * 정부의 부품·소재 R&D는 3년 미만의 분야별 상용화가 대부분

사업화

○ 첨단 부품·소재는 사업화가 어려운 "Death Valley" 존재하고 국산화에 성공해도 신뢰성미흡 등으로 수요기업이 구매기피 - 개발된 기술의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과의 연계 취약

- * 베어링(10만원대)의 신뢰성이 공작기계(1억원대)의 성능을 좌우

생산·납품

○ 부품·소재기업 영세성에 따른 종속적 계열화관계가 고착되어 납품단가인하, 납품수량 확보 불안으로 안정적 성장 곤란

- * 자동차부품업체의 모기업 단독거래 비율('03) : (韓) 58.3%, (日) 16.8%
- * 중소기업 납품단가 : ('01) $\Delta 2.6\%$ $\rightarrow$ ('02) $\Delta 3.9\%$ $\rightarrow$ ('03) $\Delta 6.6\%$

다. 매일 수입품목 진단

□ **부품·소재산업 수출·무역수지는 최근 대폭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여 금년에 사상최고로 수출 1천억불 돌파**

* 수출(역률) : ('00)799 → ('03)820 → ('04)820 → ('05.전망)1,193
 * 수입(역률) : ('00)706 → ('03)758 → ('04)820 → ('05.전망)1,028
 * 수지(역률) : ('00) 93 → ('03) 62 → ('04)820 → ('05.전망) 165

○ 반면 첨단 부품·소재의 기술력 취약으로 매일무역수지 적자는 지속되는 추세

* 對日적자(역률) : ('01)△103 → ('02)△118 → ('03)△139 → ('04.잠정)△171
 * 지난 10년간('93~'03년) 부품·소재 대일적자 누계 : 1,020억불

□ 이에 따라 통관 EDI 자료를 기반으로 세부 부품·소재별로 대일 수입 원인을 분석

○ 분석결과 각 품목별로 수입원인이 다른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따른 차별화된 기술화보 전략이 필요

대응전략	수입원인	수입규모	부품·소재
기술개발	· 응용기술 부족 · 신뢰성 취약	103억불 (삼성전자 등)	전적회로반도체, 메모리 등 68개 품목
기술도입	· 원천기술 부족 · 기반기술 취약	24억불 (한화 등)	정밀베어링 등 13개 품목
투자유치	· 기술이전 기피 · 시장규모 협소	41억불 (현대차 등)	기어박스, 롤리프로 롤린 등 19개 품목

* ('03) 대일 부품·소재 수입총액 216억불, 100대 부품·소재 수입 168억불

Ⅲ. 과거 부품·소재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

'70년대의 시장보호 정책에 이어 '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부품·소재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경쟁력 제고에는 미흡

'70년대 : 정부주도 국산화 시책

□ 추진시책 : 수입금지형 국산화정책

○ 7개 개별산업 육성법에 의해 '73년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부품·소재의 단순 공급기능 강조

* 자동차 산업 : 조립업체는 엔진가공 및 바디조립만 가능하고 여타 부품은 1개 품목 1개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함

○ 국산화율 목표 → 대상 업체선정 → 기술·장비 도입 및 외국 합작회사 설립 등을 위한 자금지원 형태의 국산화 전략 추진

□ 추진성과 : 조립산업의 고도성장 견인

○ 선진국에서 성공하여 상용화된 기술·장비를 도입, 단기간내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수출확대를 통해 급속 성장

□ 한 계 : 대·중소기업간 종속적 계열화

○ 대기업이 주도하는 조립산업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수요기업과 부품·소재기업간 종속 계열화의 원인을 제공

○ 정부 간섭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 발생

< 부작용 사례 > : 중고선박의 without motor 사건

- 조선산업 육성과정에서 국산화대상인 선박용엔진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
- 이에 따라 선박용엔진의 가격이 중고선박 가격 이상으로 급등하자 엔진은 해체 후 밀수입하고 엔진없는 중고선박만 수입되는 문제 발생

< 경쟁력 확보 사례 > : 휴대폰, 컬러 TV, 전가방송
· 휴대폰 : '99년 6월 다변화 품목에서 해제된 휴대폰은 수입금증이 예상되었으나 CDMA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오히려 기술력을 확보
· 컬러 TV : 다변화 해제로 가장 큰 영향이 우려되었으나 평면TV, 디지털 TV 등 지속적인 신규품목 개발로 기술력 확보
· 전가방송 : 다변화 품목 해제 후 원품 제도의 적용률이 오히려 축소

○ 국제경제에서 보호받던 핵심 품목은 경쟁력 확보에 실패한 반면, 다변화 해제 후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현상 발생

* 기술도입 : 60-70년대(6억불) → 80년대(33억불) → 90년대(170억불)

○ 단기적 상용화를 통한 수입대체와 이를 위한 용자지원에 주력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보다 외국 기술도입이 크게 확대

□ 한계 : 과도한 시장 보호에 따른 경쟁력 배양 한계

○ 4,202개 범용 부품·소재 국산화, 370개 품목 우수품질마크 인증

□ 추진성과 : 범용 부품·소재 국산화를 통한 수입대체

* 국산화 대상 품목 반출·고시, 전가저리 용자금(1조 6,800억원) 지원, 우수 품질 인증마크 제도 도입, 기계를 할부 금융회사 설립 등 추진

자본재산업 육성대책(95~99)

○ 2단계에 걸친 국산화시책 : 기계류·부품·소재 국산화(87~95),

* '79년 자동차, 컬러TV 등 261개 품목 → '81년 924개 품목 → '93년부터 신규 지정 없이 단계적 축소 → '99.6월 167개 품목 해제를 끝으로 제도 폐지

는 일반산 수입금증 품목의 수입 규제

○ 수입선다변화제도 : '79년부터 국내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되

□ 추진시책 : 수입선다변화 + 2단계에 걸친 국산화

'80~'90년대 : 보호·육성 국산화 시책

2000년대 이후 : 시장주도/경쟁 · 효율중심 육성시책

□ 추진시책 : 수요 · 투자연계 R&D 및 신뢰성인증제도('01년 특별법 제정)

○ 기술개발 : 민간기업과 관련 연구원 중심으로 품목 선정

- * 공급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기술수요조사 및 품목 선정
- * '00년~'04년간 354개의 핵심 부품·소재 기술개발(정부지원 4,708억원)

○ 시장진입 : 신뢰성인증을 통한 간접적인 시장진입 유도

- * '04년까지 300개 전략품목 선정, 18개 평가센터에 신뢰성 인프라 구축

○ 기술지원 : 19개 연구기관으로 통합연구단 구성

- *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,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결
- * 기술지원 실적 : 정부예산(850억원), 기업수(822개), 파견연구원(1,900여명)

□ 추진성과 : 부품 · 소재 수출확대 및 Global Star 기업 등장

○ 기술개발 등을 통한 Global Sourcing 참여사례 증가

- * 만도 : GM, 다임러, 포드 등 빅3에 ABS 및 조향장치 공급(총 17.4억불)
- * 심텍 : 인피니온, 스테츠 등에 신형 PCB 등 공급(연간 8천만불)
- * 기업경쟁력 제고의 결과 '04년 사상 최초로 부품·소재 수출 1천억불 돌파

□ 한 계 : 원천기술 확보 한계 및 전문화 · 대형화 미흡

○ 원천기술 없이 시장성·상용화에 주력한 '소규모 살포식 지원'

- * '00~'03년간 1개 기술개발 과제당 정부 지원은 17억원 내외

○ 전문화·대형화에는 크게 미흡, 부품·소재기업의 영세성 지속

- * 글로벌 부품·소재기업 시장가치 : 인텔(美, 245조원), 지멘스(獨, 71조원), 무라타(日, 20조원), 포스코(12조원), 삼성SDI(6조원), 현대모비스(4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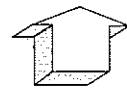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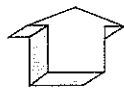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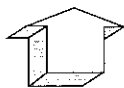
○ 새로운 부품을 개발해도 수요대기업이 구매를 기피

- *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수요기업의 구매 유도에 한계

IV. 부품·소재산업 발전전략

2010년 部品·素材産業 발전

2010년 핵심 부품·소재의 체계적 공급기지화 달성
- 매출 2천억원, 수출 1억불 초과 중핵기업 300개 육성 -



推進施策

◇ **기초분야** : 부족한 시장기는 보완, 중장기 대형과제 증진, 대·중소기업 연계형 강화

◇ **지원대상** : 기업 특성별 혁신역량 확충

○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하고
수·급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수요연계

◇ 기업활동 단계별 지원

○R&D : 전략적 핵심기술 확보

⇒ 대일수입 품목 분석에 기반한 품목별 차별화전략

○사업화 : 국산 부품·소재의 사업화 촉진

⇒ 기술개발 이후단계의 자금지원 연계

⇒ 수요기업, 공공기관 등 주체별 수요기반 확충

⇒ 부품·소재의 클로별 수출 기업화

◇ **환경조성** : 혁신효과가 상호 연계되는 선순환의 생태계 조성

○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고, 혁신클러스터를
통한 성공모델 창출·확산

과제 1

기업 특성별 혁신역량 강화



【소재기업, 중핵기업】: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

○ ‘소재기업’과 ‘모듈부품 중핵기업’이 부품·소재 공급체계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여 기술파급 효과를 극대화

○ **중핵기업** : 전략적 기술개발을 집중, 2010년까지 글로벌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300개 중핵기업 육성

-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원천기술이 포함된 대형 모듈 단위 과제를 중핵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

* '04년 현재 매출 2천억원 초과(179개사), 수출 1억불 초과(150개사)

○ **소재기업** : 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를 강화하여 부품개발에 기반이 되는 전략소재 중점 개발

- 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기술개발 주관사업자의 범위에 대학·연구소를 포함시킴으로써 산·학·연 공동연구 확산

* 기초소재분야에 대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별도의 지원사업 추진 검토

* 중합기술사업의 대차 범위에 대기업 보유 기술인력 포함 추진
“대·중소 협력 권도시공 사업(노동부)” 지속 확대

* 연수원을 대기업 보유 인포라를 통해 중소기업체의 임직원을 교육하는

부품·소재기업의 인력개발 지원

○ 주요대기업이 보유한 연수원 및 전문인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

수요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개발과 동시에 납품 유도

○ 수요 연계형 기술개발 등 R&D 전주기(기획, 개발, 평가)에 걸쳐

「부품·소재 기술·상품기획 연구회」 운영(연구회당 2천만원 내외)

○ OLED, 바이오칩 등 42개 분야를 대상으로 대·중소기업 공동의

【수요대기업】 :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구축

*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기술거래소의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자금지원 추진

*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확대('04 : 14% → '07 : 50%)

등과 연계하여 원활한 기술금융 공급 유도

- 공신력 있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투·융자

벤처기업 중점 육성(3만개도 확대)

○ 기술력 중심의 자금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

* 信賴性 : 초기 물량이 목표 수명 시간동안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특성

- 연간 100개 중소기업의 신뢰성 향상 지도

완표시 '신뢰성 평가 성적서' 제출을 의무화

○ 국산 부품·소재가 취약한 '신뢰성'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

기술인력 300여명을 1년간 파견, 현장에로 기술 해결('05년 230억원)

○ 「부품·소재통합연구단」을 통해 19개 공공연구기관의 박사급

【중소·벤처 부품기업】 : 기술력 확보를 통한 혁신역량 확충

과제 2

전략적 핵심기술 확보

◇ “2010년 세계시장 선도 품목 100개 확보”를 목표로 품목별 기술개발·확보 전략을 차별화하여 중핵기업에 집중 지원

□ 품목별 시장규모, 국내산업 파급효과, 동태적 기술력 등을 감안,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

【미래원천형】

특성 : 향후 새로운 시장형성이 예상되는 차세대 부품소재

전략 : 10대 전략 부품·소재의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민·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총 5천억원 집중 투자

○ 部品 : 수요기업-부품기업 공동으로 모듈단위 원천기술 개발
⇒ 모듈단위* 기술개발을 통해 관련 원천기술 동시 확보

* PDP 모듈 : 기판글래스 + 전면필터 + 고밀도 IC + 투명 유전체 등

○ 素材 : 學·研(기초연구)과 대형소재기업(응용개발) 공동연계 강화
⇒ 3大 분야(IT·전자용 화학소재, 경량 합금소재, 고기능성 섬유소재) 중점 개발

* 소재 : 부품에 비해 R&D 이후 투자회임 기간이 길고, 대규모 장치산업

① 전략품목 발굴 : 민간기업과 전경련, 산업기술재단, 정부 등이 공동으로 분과위·연구회를 구성

② 우선 추진업종 : 전기·전자, 자동차, 기계 등 3개 업종

③ 과제수행 주체 : 수요대기업-부품·소재중핵기업-협력업체 공동 추진
- 필요시 대학 및 전문연구원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

④ 소요자금 조달 : 기업의 R&D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사후 매칭
- 50%를 기본원칙으로 대기업-중소기업간 차등비율 적용

- 유라시아권 : 금년에는 벨라루스, 우크라이나로부터 30건의
기술협력기금설치(英 100만불) 등을 통해 유럽 선진기술 확보
- EU권 : 유레카 프로그램 참여, 기술협력센터 설치(佛), 공동
○ 해외기술 도입·협력 추진

- 특히, 일본의 경우 "Japan Desk"(日 노무라 종합연구소 참여)의
맞춤형 투자유치를 통해 금년에는 30개사(3억불)를 유치
- 미국, EU 등 주요 권역별 '부품·소재 해외 Road Show(3회)
를 개최하여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 투자유치(5억불) 추진
-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

【경쟁력 취약형】
 특성 : 기술개발 능력의 부족으로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품목
 전략 : 맞춤형 투자유치 및 해외기술 도입·협력

- 기술성평가(수요기업 참여) 및 시장성평가(민간 투자기관)를 통해
기술개발 및 시장진입의 성공가능성 극대화
- 기술개발 품목은 시장수요에 맞게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

【시장수요형】
 특성 :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(Time to Market)이 중요하여 조속한
 기술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한 품목
 전략 : 한·일 FTA에 따른 수입증가 예상품목, 중국 수출확대
 품목 중 매년 50개 품목에 500억원* 지원
 * 기술개발(정부 250억원), 생산능력 확충(창투사 등 투자기관 250억원)

□ 범부처적인 부품·소재기술개발 추진

○ “차세대성장동력산업”과 부품·소재기술개발간 연계 강화

- 과기·산자·정통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부품·소재기술개발 추진

* 3부처 공동 차세대성장동력예산 : ('04)4,049억원(부품·소재 1,176억원)

○ 기초기술이 필요한 소재분야 육성을 위해 과기·산자·정통부 공동의 추진체계 구축

- 과기부 : 전체 업종을 포괄하는 소재분야 전문연구소 설립
- 산자·정통부 : 산·학·연 공동으로 소재분야 상용화 개발

○ NT분야 육성을 위해 나노수준 측정장비 기술개발(과기부)

- 나노수준의 측정 및 테스트 장비 집중 개발

○ IT 부품산업의 성장기반 마련(정통부)

- IT 839 전략을 통해 시장창출과 기술개발 연계
 - WiBro, DMB 등 신규서비스를 도입하여 IT부품 시장창출
- IT SoC 분야 집중 육성
 - 적기 시장진입이 중요하고 연구개발 비용이 증대되는 추세
를 감안 : IP와 SoC 플랫폼 중점 개발
 - IT SoC 핵심 설계인력 양성('05년 144억원/150명)
- IT 부품 자립화를 위해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Electro-0580 사업 추진

* 중소기업 탈핵 회사제 등을 편드로 묶어 「자산공동화증권」을 발행(1단계 3,000억 규모) → 중진공이 후순위채 인수 방식 검토

* 중소기업진흥을 뒷 산업기반기금 활용

○ 반도체·자동차·조선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1조원 범위(1차 3천억원)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하고, 중진공이 신용보강 지원

○ 수요대기업과 부품·소재기업간의 협력약정서를 기초로 "수급 기업펀드"를 조성, 기술력 제고 및 투자확대 도모

【수급기업 투자펀드 추진】

* 부품·소재 전문투자조합 결성실적('02~'04) : 7개 조합, 950억원

적극 활용

○ '부품·소재투자조합'('05년 민·관합동 100억원)도 사업화 자금으로

○ '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'(1,100억원)은 기술개발을 성공 한 부품·소재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설비 구입에 우선지원

○ 기술개발 이후 생산설비 투자자금을 산업은행의 '차세대 부품 소재산업 육성자금'(1,500억원)으로 지원

【사업화·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】

가. 사업화 자금지원

◇ 개발된 기술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, 수급기업간 협력 활성화를 뒷 공공기관 구매촉진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 다각화

개발된 부품·소재의 사업화 촉진

과제 3

나. 대·중소기업간 협업(Collaboration) 활성화

【중소부품·소재기업과 대기업간 공정혁신】

- 수급기업간 공정혁신을 위한 제조장비 개발 적극추진
 - '제조장비 개발 로드맵'을 수립하고, 산업별 공정장비 개발
 - *자동차(다관절 로봇), 반도체·디스플레이(나노·플라즈마 가공장비), 섬유(첨단 직조·염색기계), 석유화학(기계·플랜트 설비) 등
 - 부품·소재와 제조장비를 패키지 과제화하고, 수요연계형 기술개발로 추진('05년 반도체·LCD 등 8개 제조장비에 350억원 지원)
- 중소 부품·소재기업과 대기업간 제조공정정보화(e-매뉴팩처링)을 통한 공정혁신 추진
 - * 금형분야 시범실시 후 자동차 부품, 디지털가전으로 확대('05년 35억원)
- 물류전문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·중소기업 공동물류시스템 도입 추진 (전경련)
 - * 업종·지역별 공동 물류창고 및 주문발주 시스템 구축

【수급기업간 협업기반 조성】

- 「대·중소기업협력재단」 설립('04.12.27)을 통해 기술·판로·투자 분야 협력모델 개발·확산, 거래실태 모니터링 및 분쟁조정 추진
- 경제5단체의 「대·중소기업 협력확대 선언문」('04. 12.15) 채택으로 형성된 협력 분위기를 국산 부품·소재 구매촉진과 연계
 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및 전경련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,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
 - * 선언문 주요내용 : 거래관행 개선, 협력업체 마케팅 지원, 공동기술개발 확대, 휴면특허 이전, 신기술제품 구매확대, 경영자문봉사, 이익공유 등

- NT, EM 등 7개 인증제도를 2개(신기술, 신제품)로 통합하여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
- 대상기관의 확대 : ('04)33개 기관 → ('05)151개 기관
- 신기술인증품목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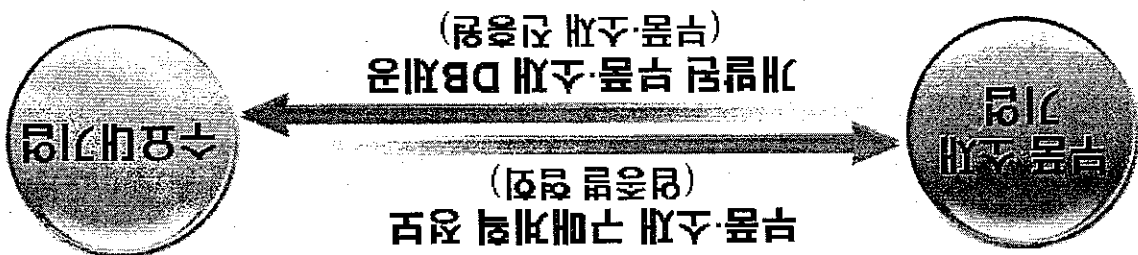
【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확대】

- * 참여기관 : 국방부, 한전, 가스공사 등 8개 기관('03년 17개 → '04년 87개)
- * '05년 지원계획 : 정부지원 100억원, 참여기관을 15개 이상으로 확대 추진

○ 부품·소재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"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"의 지속적 확대 추진

【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확대】

다. 공공기관 등의 국산 부품·소재 구매 촉진



○ 수요기업-부품·소재기업간 쌍방향 구매정보 포털 구축

- * 전사회가 부품계약 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요기업 참여 확대
- * 국산 부품·소재 구매, 공동기술개발 등을 선도한 기업에 대한 정부포상 추진

○ 수요대기업이 참여하는 우수 부품·소재 전시회를 개최하고 "부품·소재기업상"에 수요대기업 부문 신설

【구매촉진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확대】

○ 부품·소재 구매촉진을 위한 보증보험 도입 확대

- 금년 하반기에 ‘신기술제품 성능보증보험제도’를 실시하여 공공기관 구매책임자의 신기술제품 구매시 면책권한 부여

* “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”에 법적근거마련(개정, '04.12)

- 가칭 ‘부품·소재·기계류 판매보험(공제)’ 도입 검토

< 부품소재·기계류 판매보험(공제) >

▷ 개 요

- 수급자간 신용거래가 가능토록 「부품·소재·기계류 판매보험(공제)」을 통하여 외상매출에 대한 생산자의 대금회수위험을 보증하고, 수요자에게는 구매자금 부담 경감
- 부품·소재·기계류의 생산, 판매, 자금회수, 하자보수 등의 전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책임, 거래위험, 자금조달 등을 종합지원

▷ 기대효과(현행 각종제도와의 차이점)

- 분산·다기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각종지원제도를 통합·운영함으로써 거래비용이 절감되어 기업부담 경감하고 신용거래를 촉진

예) 설비자금 융자(중진공단 등), 어음보험·매출채권보험(신용보증기금 등), 품질·하자보증(공제조합 등)·신뢰성보험(수출보험공사)

○ 외국 부품·소재 기업의 국내 덤핑행위에 강력 대응

- 반덤핑 조사개시 요건 완화 및 중소 부품·소재기업의 덤핑제소시 비용(변호사 선임) 우선 지원

과제 4

부품·조제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

◇ 사업화에 성공한 국내 부품·조제 기업이 해외 마케팅, 신뢰성 인증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

○ 부품·조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

-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전시회 참여(182개) 및 시장개척단 (105건) 파견

- 부품·조제 분야별 국내 무역전시회 개최(43개)를 통해 해외 유수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 추진

○ 신뢰성 있는 부품·조제의 수출확대 촉진

- 국내 신뢰성 인증마크와 해외 유명마크간 상호인증을 체결 하고 상호인증을 범위도 확대

* 상호인증 추진실적('04년) : 기계연 - 獬 TUV, 산업기술시험원 - EU DNV
* ('04)기계부품 → ('05)전자, 자동차 부품으로 확대

- 수출보험공사의 신뢰성보험을 통해 국산 부품·조제의 신뢰성을 보장함으로써 수출확대 지원('05년 30개사)

○ 부품·조제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 확충

- 분야별 전문기업(마케팅사, 컨설팅사, 회계법인)으로 「부품·조제 경영지원 사업단」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

- 해외 주요기업과 수출상담 및 정보제공, 투자유치를 통한 부품·조제 기업의 대형화 등을 지원('05년, 25억원)

과제 5

부품·소재 혁신클러스터 확산

◇ 각 산업단지 및 지역 특화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품·소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성공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

□ 부품·소재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반월·시화 산업단지를 부품·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('05년 정부지원 : 50억원)

○ 혁신 클러스터 내에 개별 모듈단위의 미니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혁신기반을 구축

< 사례 : 고밀도PCB 기관 미니 혁신클러스터 >



□ 연차적으로 각 지역별 특화산업을 감안한 부품·소재 혁신클러스터를 전국으로 확대

- 경남·창원지역 : 기계 부품·소재 혁신클러스터
- 울산지역 : 자동차부품·조선기자재 혁신클러스터
- 포항지역 : 자동차·조선용 금속소재 혁신클러스터
- 인천지역 : 전자소재 혁신클러스터(송도단지)
- 부천지역 : 금속소재 혁신클러스터
- 광주지역 : 광학·나노소재 혁신클러스터
- 군산지역 : 자동차부품 혁신클러스터
- 오창지역 : 바이오소재 혁신클러스터

* 중장기적으로 반월·시화단지와 인천, 부천을 연계하는 혁신 Belt 조성 검토

< 제도개선 필요사항 사례 > : BT 소재개발을 위한 제도개선
 ▶ 집단 BT소재 입사시험 및 품목허가 기간 단축(약사법)
 • 집단소재는 평가·심사 기준 부재로 허가신청 이후 장기간이 소요
 • 법정처리기간은 평균 6.7개월, 합성신약 10.1개월, BT집단신약 14.2개월 소요

□ **법정부 차원의 규제완화 대책 수립 · 추진**
 ○ 상반기 중 중소기업 제형단을 부품·소재기업에 파견, 규제완화
 파제를 발굴하고 부품·소재발견위원회를 통한 개선 추진

□ **부품·소재 기술개발전문기업(RJV) 설립 유도**
 ○ 출연 연구기관 또는 이공계 대학과 부품·소재기업 공동으로
 R&D 및 시제품 개발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RJV 설립 유도
 * 파기부의 연구개발전문기업 지원 범위에 부품·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도 추가

□ **국방 연구개발과의 연계강화**
 ○ 연구개발비의 15% 이상을 핵심 부품·소재에 책정(現 9.2% → '07
 : 15%)하고 관련 국방기술의 민수이전 확대
 * 산업기술과 연계강화를 위해 관련부처 공동의 추진방안 검토

□ **부품·소재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**
 ○ (현행) 발행주식 30% 미만 취득·소유시 출자총액 예외 인정
 ○ (개선) 30% 지분 취득·소유 요건을 완화
 * '04.12월 부품·소재특별법을 개정, 부품·소재투자조합에 수혜대기업 참여 허용
 * 투자목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5년 이내 지분 매각조건 추가

◇ **부품·소재 개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정부규제를
 발굴, 개선하여 부품·소재 중소기업의 대형화·전문화 유도**

V. 범부처적인 민·관 합동의 추진체계 구축

□ 범부처적인 발전전략 추진·점검 체계 : 부품·소재발전위원회

○ 부품·소재산업 발전전략의 범부처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점검을 위해 「부품·소재발전위원회」 활성화

- 위원장 : 국무총리, 위원 : 10개 관련부처

○ 구체적인 과제의 집행내용은 「부품·소재실무위원회」를 통해 점검 강화

- 위원장 : 산자부장관, 위원 : 10개 관련부처

□ 전경련 등 경제5단체 등과 기업활동별 발전전략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강화

○ 기술개발 : 전경련, 산업기술재단과 공동으로 품목발굴 지원

○ 사업화 : 산업은행 등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, 대·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통해 대·중소기업간 연계 강화

○ 수출기업화 : 부품·소재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은 Kotra, 「부품·소재 경영지원사업단」 등을 적극 활용

○ 혁신클러스터 : 산업단지공단과 각 지역의 대학·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산·학·연 연계강화

□ 이와 함께 부품·소재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은 19개 공공연구기관과 「부품·소재산업진흥원」을 적극 활용

부품소재발견전략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

- 부품·소재 산업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독자적인 원천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혁신역량을 제고

▶ 부품·소재 기업의 기술수준 ('00년도 부품소재 산업 실태조사)
- 신제품개발 기술 : ('00) 66.4 → ('10) 85.0
※ 전자 : ('00) 74.8 → ('10) 90.0
- 생산 기술 : ('00) 77.8 → ('10) 90.0
※ 자동차 : ('00) 81.2 → ('10) 95.0

- 이러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8년경 우리 부품·소재 산업의 생산액은 50% 이상 성장하여 400조원에 이를 전망

▶ 부품·소재 수출규모 : ('04) 1,081억불 → ('10) 2,500억불
- 부품·소재 수출비중 : ('04) 43.8% → ('10) 50%
▶ 부품·소재 무역수지 : ('04) 148억불 → ('10) 500억불

- 한편, 부품·소재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핵심 부품·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축소되어 산업 전반에 걸친 고부가가치화가 달성

▶ 국내 제조업 외화가능률 : ('00) 63.3 → ('08) 75%
- 전기·전자 : ('00) 54.1% → ('10) 65%
- 자동차 : ('00) 69.3% → ('10) 80%

- 결과적으로 부품·소재 산업의 든든한 허리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'고용 있는 성장'을 견인

▶ 연평균 수출성장률 ('04~'10) : 전체산업(12%), 부품·소재(15%)
▶ 부품·소재 산업의 고용비중 : ('03) 46% → ('10) 50%